

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의 틀 속에서 가게저주론의 건강성과 균형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강렬성' (intensity)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리자면 "차지도 덮지도 않은 신앙"이 아닌 "차든지 덮든지 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가게저주이론은 주장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궁극성' (ultimacy)이다. 참된 신앙은 '궁극적' 혹은 '근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째 기준에서 볼 때 가게저주론은 보다 현세적이며 지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울러는 셋째 기준으로 '진실성' (genuineness)을 지적하였는데 건강한 신앙체계는 진실함과 참됨이 있어야 하며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맞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빠뜨리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성'의 기준에서 볼 때 가게저주론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주관적인 체험과 현상학적인 결과에 성경본문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간과하거나 성경의 텍스트를 왜곡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신앙체계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는 '중심성' (centrality)인데 신앙의 대상 (object)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신

앙의 핵심내용이 '주요관심사'가 될 때 건강한 신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네 번째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가게저주론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탄과 악령의 권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하기보다는 마귀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하며,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더 강조함으로써 건강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체험과 현상에 본문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게 문제다.

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섯째 기준으로 파울러는 '통일성' (unity)을 지적했다. 즉 건강한 신앙은 그 신앙인의 전체적인 모습과 잘 일치해야 하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인격 따로의 분열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인격 속에서 잘 스며들어 전인격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게저주론은 삶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영적인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일반은총적인 차원을 간과해버리는 균형을 잃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성과 조상의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성 사이의 조화를